

경상 방언 성조의 자립 분절 음운론적 연구*

한 신 회

1. 머릿말

이 글은 현대 한국어의 경상방언(특히 대구방언)의 성조 현상을 자립분절 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에 입각하여 기술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Goldsmith(1976), Hara-guchi (1977) 등이 그 전형적 모델을 제공하고 있는 자립분절음운론의 체계 내에서 경상방언을 다룬 이전 연구로는 이해숙(1985), Narahara(1985), 이병진(1986) 등이 있으나, 방언 성조의 다양한 많은 음운현상들을 설명하기에 불충분한 점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보다 폭 넓은 성조 기술을 위하여 어휘 음운론(Lexical Phonology) 및 운율 음운론(Metrical Phonology)의 접근법을 가미시키려고 한다.

본 논문의 주장은, 경상방언에서 형태소들은 기저표시에서부터 성조와 연결되어 있으나, 명시된 성조의 자질은 그대로 표면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의 어휘적(lexical) 및 후 어휘적(postlexical) 성조 규칙이 적용되어 표면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 제안은, 방언 성조는 운율적 음보(metrical foot)구조를 지닌 언어로 기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기저표시에서 표시된 (marked) 성조의 음성적 실현은 운율적으로(metrically) 정해짐을 보임으로써 방언 성조의 기술은 반드시 영어의 강세(stress)와 마찬가지로 운율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 절에서는 경상방언의 기본 성조 체계 및 그 특징과 함께 운율적 음보(metrical foot) 구조의 이론적 의의를 보일 것이고, 뒤 이은 절에서는 다양한 성조 변동 현상을 설명할 어휘적 및 후 어휘적 성조 규칙들을 세움으로써 방언 성조의 복합적인 여러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2. 경상방언의 성조체계 및 특징

경상방언은 순수한 성조 언어(tone language)가 아니라 액센트 언어(accent language)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액센트는, Pulleyblank(1986)에서 논의되었듯이 음운론적 문헌에서 대략 다음 세 가지의 방법으로 다루어진다. 첫째는, 종래의 Goldsmith(1976), Williams(1972) 등에 의해 추상적인 기호 표시(diacritic marker)으로써 액센트가 다루어진 것인데, 국어에서는 이해숙(1985)의 논의가 이 방식을 따랐다. 둘째는 Hyman(1982), Pulleyblank(1986), Poser(1984) 등이 주장한 것으로, 액센트는 어휘적으로 명시화된 성조에 미리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병진(1986), Narahara(1985) 등이 경상방언 분석에 사용한 방식

* 본 논문은 제 6 차 국제 한국어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에서 발표한 필자의 "An Autosegmental Approach to a Kyungang Dialect: A Lexical Analysis"에 대한 수정 연구인데, 조언을 주신 정국 교수님께 감사함을 드린다.

이다. 세번체는, 강세 언어(stress language)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운율적 수형도(metrical tree)가 세워지고 성조가 이 속으로 도입된다는 주장인데, Hulst & Smith(1982), Huang(1985), Rice(1988) 등의 연구가 이 계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입장은 기술상의(descriptive) 자연성을 얻기 위해 둘째번 방법과 세번째 방법을 절충하는 것이 될 것이다. Leben(1978)에서는 운율 음운론(Metrical Phonology)과 자립분절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의 역할 분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경상 방언에 존재하는 주요 성조 규칙들은 성조적인 운율적 음보 형성의 입력(input)이 되므로, 이 방언 성조는 자립분절음운론과 운율음운론의 영역 둘 다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Hulst & Smith(1982)와 Huang(1985)에는 성조의 하향 변화 현상들(즉 downdrift, downstep)이 운율 음운론적으로 해석되어지는 예들이 등장한다. 이처럼 인위적으로 양 음운이론의 역할을 반드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결정권을 지닌 것은 자연성이다.

이제, Liberman & Prince의 운율 이론의 자연적인 확대가 방언 성조 기술의 일반성 포착에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 예시해 보이겠다. 당초, Liberman & Prince의 주장은, 강세의 값은 전적으로 상대적(relative)이라는 점, 또 SPE(The Sound Pattern of English) 표시 표시 체계인 수치 사용 방법은 안 된다는 것, 또 강세 보유 단위는 각 마디가 상대적인 강약으로 그 자매 마디와 관련지어지는 나무꼴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 등인데, 이들의 주장 속에 내재하고 있는 상대적인 정도(relative degree)의 개념이 방언 성조의 음성적인 표시 논의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먼저, 경상 방언의 성조 체계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다. 경상방언에는, 음성적으로 고 성조(H-tone)와 저 성조(L-tone)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절대적인(absolute)높이가 아니라 두 모음 위에서 실현되는 성조끼리의 상대적인(relative)높이에서 비롯된다. H 성조는 기저 표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미리 성조 소지 단위(Tone Bearing Unit: TBU)로서의 모음에 미리 연결된 것과, 연결되지 못한 채 떠 있는(floating)모음으로 있는 것이 있는데, 이들은 공히 음운 과정에 참여하며, 그 자체로서 의미 차이를 낳는 형태소가 된다. 이에 반해서 L 성조는 Pulleyblank(1986)의 주장과 같이 부재 자질 규칙(default rule)에 의해 파생의 맨 끝 단계에서 채워지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방언에는 음운 과정에 참여하는 즉 기저표시에서 이미 연결된 L 성조 형태소도 소수 존재하는데, 이 형태소들은 불투명(opaque)의 L 성조이다. 대체적으로 방언 성조에서는 체언이나 어간의 성조가 핵심이 되며, 격조사나 어미들의 성조는 언어에 아무런 참여도 못할 뿐 아니라, 어떤 문법적인 기능도 담당하지 못한다. 핵심이 되는 체언 및 어간에는 기저에 미리 연결된 H 성조의 유무가 중요하며, 조사나 어미들은 기저에서 거의 빈 자리 그대로 존재하다가 부재자질 규칙에 의해 L 성조로 음성적 실현이 되는 것이다.¹⁾

¹⁾ 이것은 중세 국어의 성조 표기에서도 그 증거를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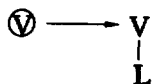
예를 들면, 훈민정음체제에서의 방점은 무점(평성), 1점(거성) 및 2점(상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이기문 1972), 여기서 저조인 평성을 무점으로 표시한 것에 특히 주의할 만하다. 이것은 Pike가 성조의 표기를 위하여 제시한 방법과 일치하는데, 그는 덜 자주 나타나는 성조에만 표시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Pike 1947).

이러한 성조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운율적 음보 (metrical foot)가 방언성조 기술에 이바지함을 보겠다. 앞에 제시한 액센트 접근법 중 두번째 방법만을 채택할 경우에는 음성적 성조기술이 불충분하다. 우선 이 방법에 입각한 다음 자료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 | | | | |
|--------|-------------|----------------------|---------------|
| (1) a. | /mani/ | [mani] | 'garlic' |
| | H | H L | |
| b. | /kini/ | [kini] | 'shadow' |
| | H | L H | |
| c. | /somε/ | [somε] | 'sleeve' |
| | ⊕ | H | |
| d. | /kamani/ | [kamani] | 'strawbag' |
| | H | H L L | |
| e. | /k'amaku/ | [k'amaku] | 'raven' |
| | H | L H L | |
| f. | /satali / | [satali] | 'ladder' |
| | H | L LH | |
| g. | /mucikε/ | [mucikε] | 'rainbow' |
| | ⊕ | H L | |
| h. | /tuti leki/ | [tuti leki] | 'nettle rash' |
| | H | L ₁ L H L | |

위 제시한 예들은 비교적 간단한 도출을 보인는데, 기저에 떠 있는 (floating) H 성조를 지닌 c와 g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의 부재자질 규칙에 의해 무표시(unmarked) TBU에 L 성조가 삽입되어 표면의 성조형이 도출된 것이다.

(2) 부재 자질 규칙 (Default R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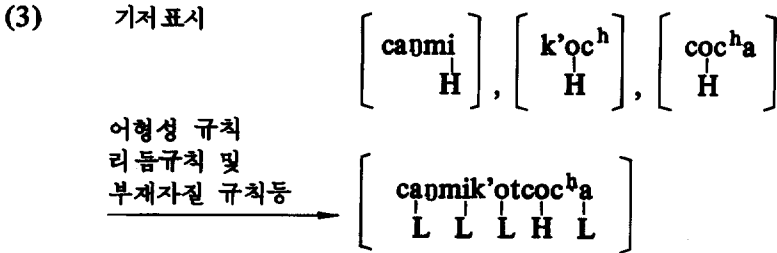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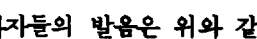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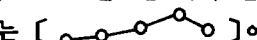
여기서 원이 둘러진 V는 성조가 아직 부여되지 않은 TBU 라는 표시이다.

이제 위 자료들 중에서 3음절 이상어들의 표면형에 관심을 집중해 보자. 이를테면, (1)d와 같은 성조형인 [mɛni:li] 'daughter in law'의 표면형을 두고 생각해 보자. [HLL]이라는 표면 성조형은 한 어사 당 반드시 하나의 핵(peak)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방언성조의 한 중요 특징을 표시하기는 하나, 핵 이외의 위치하는 비 핵(non peak) 요소들인 L 성조들의 상대적인 높이에 대해서는 전혀 표현하지 못한다. 실제로 관찰된 토박이들의 발음은 두

2) 기저의 성조 표시는 일반적으로 문제의 명사 뒤에 액센트 없는 격 조사나 접사류를 연결함으로써 결정한다.

번째 음절의 L 성조 보다는 세번째 음절의 L 성조가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한 해결책으로 허웅(1963)님의 생각처럼 H, M (Mid Tone), L의 3 성조체계를 가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은 음절 수가 많아지는 만큼 제2 제3의 중간성조를 계속 수립하여야 하는 등, 오히려 문법이 복잡하게 될 우려가 있다. 다음 예를 보자.



위 예는 다음 절에서 다룰 순환적인 성조 리듬 규칙에 의해 위와 같은 표면형으로 나올 것이 예측되어지는데, 실제 토박이 화자들의 발음은 위와 같은 []이 아니라 적어도 네 개의 다른 높이가 존재하는 []이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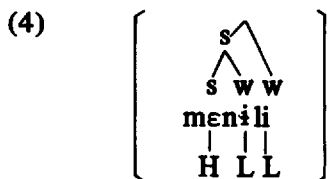
이에 본 논의에서는, 비록 기저에서는 H와 L의 이분법적 정보가 있을지라도 이들이 음성적으로 실현될 때에는 그 해 뿐 아니라 비 해들의 상대적인 높이까지 고려할 수 있는 이론적 장치로서 운율적 음보 (metrical foot)를 도입하고자 한다. 그 기본 생각은 다음과 같다.

앞에서 보았듯이, H 성조는 체언이나 어간의 어휘적 일부분이며, 이 H 성조를 지닌 TBU는 인접한 무표지의 TBU들에 대해 해이 되므로 고저의 대조가 있는 2음절 영역을 지니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정상방언은 양분적 운율 음보 (binary metrical foot)가 있는 강제언어같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특별히 성조적 음보 (tonal foot)이라고 부르겠다. 이러한 성조적 음보는 어휘적으로 그 형태소의 일부가 되고 있는 H 성조를 지닌 TBU와, 그 오른쪽으로 인접한 TBU 사이에 이루어진다. 어휘적으로 H 성조를 지닌 TBU 위의 음보 가지는 강한 (strong) 가지 S로 표시하고 오른쪽으로 인접한 TBU 위의 음보 가지는 약한 (weak) 가지 W로 표시한다. 이것은 운율 음운론 (Hayes (1980))에서의 투사 (projection)의 과정이 미리 연결된 H 성조를 기조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제 (1)에서 제시한 몇 가지 자료를 성조적 음보구조를 지닌 형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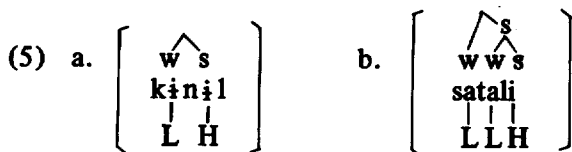
³⁾ 이 예는 필자의 "An Autosegmental Approach to a Kyungsang Dialect"에서 보인 것인데, 그 음성적 실현에서의 L 성조간의 높이 차이에 대한 지적을 정국 교수께서 해주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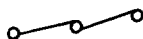
그런데 (3)b의 맨 끝 음절의 TBU는 음보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음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든 여분의 (extrametrical)성조없는 TBU들도 하나의 음보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각 나무 마디에서 가지를 치는 (branching)마디는 그렇지 못한 자매 마디에 대해 더 강하다는 제안을 부가한다. 그리하여 위 (3)b의 완전한 음성적 표시는 아래 (4)에 예시한 바와 같아진다.



이 (4)의 표시는 핵이 되는 부분 뿐 아니라 나머지 두 음절의 상대적 높이까지 그 지배 마디의 S 및 W 들의 차이로써 명시해 주는 것이다. 이것은 나무끝의 음보를 가정하지 않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했던 문제였다.

이상을 요약한다면, 방언 성조의 음보는 왼쪽으로 가지를 치는 (left branching) 나무끝을 H 성조가 있는 TBU에서부터 시작하라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이 원리가 방언 성조의 모든 다른 자료에 대해서도 꼭 같이 적용되느냐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위 (1)에 제시한 자료 중에서 단어의 맨 마지막 음절에 H 성조가 연결되어 있는 [kinil], [satali] 등의 음보 구조는 강 (S) 마디 오른쪽에 더 이상의 TBU가 없으므로 문제가 된다. 이 경우에는 왼쪽으로 가지치는 (left branching) 나무끝의 음보를 설정해야 한다. 이번에도 역시 H 성조와 미리 연결된 TBU는 강한 (S)마디로 표시되고 그 왼쪽으로 인접한 성조없는 TBU는 약한 (W)마디로 표시되며, 그 다음 단계로는 오른쪽 가지치기 때와 마찬가지로 음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수적 TBU에까지 연속적으로 음보 속에 끌어들임으로써 다음과 같은 음성형으로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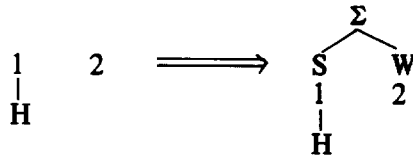


예시한 (5)b는 단계적으로 높아가는 음성적 실현인 []의 성조 표시를 잘 나타낸다. Ramsey (1978)와 Narahara (1985)는 '진달래' 등 위 (5)b형 명사들에 대해 두번째 TBU의 음성적 높이가 첫번째 TBU보다 분명히 높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달리 표현의 방도가 없으므로 단순히 [LHH]로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두 H 간의 높이 차이는, 엄연히 그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게 된다. 우리의 체계 내에서는 음운론적 음보를 도입시킴으로써 모든 TBU 간의 상대적인 높이에 대해 일반적인 기술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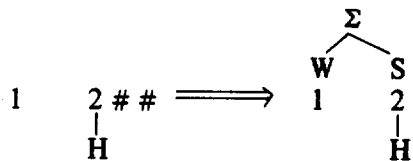
이제, 지금까지 보인 방언 성조의 음보형성 (Tonal Foot Formation)의 과정을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나타내겠다.

(6) 성조 음보 형성 (Tonal Foot 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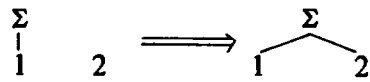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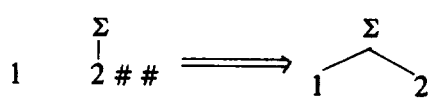
ii)



iii) a



b



먼저, i) 규칙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미리 연결된 H 성조를 참고하여 첫번째 이분 가지 (binary branch) 음보를 형성하는 것이고, iii)의 규칙 중 a는 i)의 방식으로 음보 교점을 부여받지 못하는 모든 TBU에 대해서 동일한 음보 속으로 반복적 연결을 시키라는 것이다. 반면 ii) 규칙은, 단어 끝 음절의 TBU에 H 성조가 없던 경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첫번째 이분 가지를 형성하라는 것이며, 이 방법에 의해 음보 교점을 부여 받지 못하는 모든 부수적 TBU에 대해서는 동일한 음보 속으로 반복적으로 연결시키라는 iii) b의 규칙이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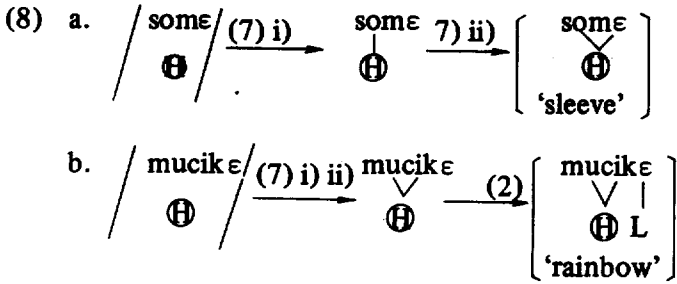
이상으로써 (1)에 제시한 자료들의 음성표시들은, 그 운율 구조 층위를 별도로 설정함으로써 TBU들간의 상대적인 높이 비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지게 된 것이다.

이제, 위 (1)의 자료 중에서 나중의 논의로 남겨 두었던 것으로, 기저 표시에서 부유 (floating) H 성조를 지닌 c, g 예들의 도출과정을 살펴 보자. 이들은 두 개의 H 성조가 연속적으로 표면에 실현된다. Halle & Vergnaud (1982)는 “연결 규약 (Association Convention)은 부유 성조에만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저에 한 군데의 핵이 두드러져 있지 않은 위 (1) c, g와 같은 예들에 대해서 부유 성조를 TBU와 연결시키는 연결 규약을 설정한다. 경상방언 특유의 규약은 다음과 같이 진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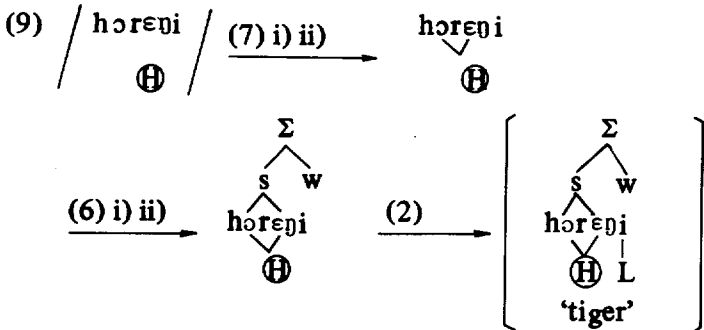
(7) 성조 연결 규약 (Tone Association Convention)

- i) 부유 |(floating) H 성조를 첫번째 TBU에 연결하라.
- ii) 연결된 H 성조를 오른쪽 빈 TBU에 전파시켜라.

위 규약은 (1) c, g의 올바른 표면 성조형을 끌어낸다.



그러면, 부유성조를 기저에 지니고 있다가 연결 규약에 의해 표면에 두 H의 연속적으로 실현되는 위 예들의 운율적 구조는 어떠한가? 우선, 위의 (8)a에 속하는 [소매], [호박] [구름] 등은 어느 누가 발음을 하여도 두 음절의 높이가 똑같다. 여기서, 연결 규약에 의해 생긴 두 연속 H 평성조 (level tone)는 그 상대적인 높이 차이가 없으므로 음보 형성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아마 Obligatory Contour Principle (OCP)이 작용한 탓인 것 같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H 성조 연속은 하나의 마디 (node)만을 지니며 그 오른쪽에 성조없는 TBU가 따라올 때에만 그것과 더불어 하나의 음보를 형성한다고 본다. 다음 예시가 바로 이 과정을 보여준다.



이상으로써 경상방언의 기저에 존재하는 즉 어휘적으로 연결된 H 성조를 기초로 하여 운율적 성조 음보를 형성함으로써 음성적으로 나타나는 바 대로의 특징적인 성조 기술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성조 표시에 운율이론적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경상 방언에서의 몇 가지 중요 특징에 의한 것이다. 이를테면, (1)에 제시한 자료들은 물론이고 차후 다룰 모든 어휘적 및 후 어휘적 단계의 표면형은, 하나의 음운론적 단위인 성조적 음보를 형성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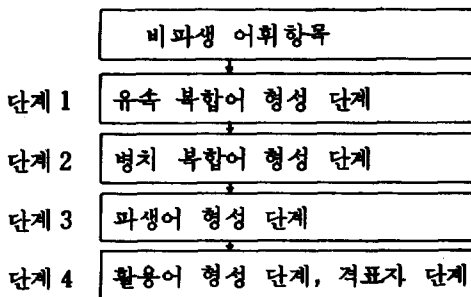
위하여 반드시 한 군데의 핵을 지닌 성조 가락으로 되려고 한다는 점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 음보내에서 L 성조를 사이에 두고 H 성조가 양쪽에서 나타나 두 개의 핵을 이룰 수는 없으며, 또 부유 성조만 지녔거나 그것조차 없는 단어 형성 과정에서는 반드시 어떠한 규약 혹은 규칙에 의해 핵을 부여 받아야만 하나의 운율적인 음보가 형성된다는 그것이다. 이 특징은 다음 절에서 다루어질 어휘적 및 어휘적 단계에서 나타날 모든 성조 변동(tone alternation) 과정에서 그대로 반영이 될 것이다.

이로써 방언 성조의 특징을 고려한 보다 자연스러운 성조 기술을 위하여 운율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절에서는, 어휘 음운론적 체계내에서 복합어 형성 단계, 파생 및 활용어 형성 단계 및 후 어휘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다소 복잡한 듯 느껴지는 여러 성조 변동 현상들을 살펴 보고, 여기에 작용하는 규칙들이 한결같이 하나의 성조적 음보라는 음운론적 단위를 그 영역으로 하는 자연스러운 것들임을 보이려고 한다.

3. 어휘적 및 후 어휘적 성조 규칙

경상방언의 표면의 성조 가락의 단위는, 체언 혹은 체언+체언, 동사 형용사의 어간+접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어사(word)이다. 그런데 복합어 형성의 단계에서나 파생 및 활용 단계에서는, 본질을 뿐 아니라 성조까지 제각기 지닌 체 결합하므로 여러 가지 복잡한 성조 변화가 초래 된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무질서해 보이는 경상방언의 여러 성조 변동 현상들이 어휘 음운론의 메두리 내에서 규칙성 있게 움직인다. 아래에서는 각 단계들에서의 성조 규칙들을 몇 가지 수립할 것이다. 또 경상 방언은 그 어휘 목록 속에 성조가 이미 들어가 있는 언어이므로, Pulleyblank (1986)가 말한 데로의 어휘 음운론적 이론의 의미(implication)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세우는 방언 성조의 여러 규칙들은 어휘부 규칙일 경우 순환성의 원리(Cyclicity Principle)를 지키고 형태론적인 괄호(morphological bracket)에 의존하는 등 어휘부 음운론에 속하는 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부재자질인 L 성조의 삽입규칙의 적용단계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다. 전체적인 모형은 Kiparsky (1981) 등의 일반적인 어휘음운론을 바탕으로 할 것이며, 단계 유순(level ordering)에 관해서는 복합어 형성 단계 다음에 파생 및 활용의 접사화 단계가 있다는 Ahn (1985)의 모형을 참고로 할 것인데 Ahn의 어휘부 구조는 아래 (10)에 보이는 바와 같다.

(10) 어휘부 모형 (Ahn 1985:36)



3.1. 복합어 형성(Compounding) 단계

우선 다음 자료들을 보자.

- (11) a. $\acute{V} V \rightarrow \acute{V} \grave{V}$
- | | | |
|--|---|--------------------|
| / san-sɛ / | / [Σ
s w
sansɛ
H L] / | 'a mountain bird' |
| / k ^h oŋ-pap / | / [k ^h oŋpap
H L] / | 'cooked bean rice' |
| / k'oc ^h -ip ^h / | / [k'onnip ^h
H L] / | 'a flower leaf' |
- b. $\acute{V} \acute{V} \rightarrow \grave{V} \acute{V}$
- | | | |
|---|--|--------------|
| / k'oc ^h -pat ^h / | / [Σ
w s
k'otpat ^h
L H] / | 'garden' |
| / k ^h oŋ-kuk / | / [k ^h oŋk'uk
L H] / | 'bean soup' |
| / mal-t'oŋ / | / [malt'oŋ
L H] / | 'horse dung' |
- c. $V \acute{V} \rightarrow \acute{V} \acute{V}$
- | | | |
|---------------------------|------------------------------------|-----------------------|
| / non-pat ^h / | / [nonpat ^h
H H] / | 'rice field and farm' |
| / pom-k'oc ^h / | / [pomk'ot
H H] / | 'a spring flower' |
| / s'al-cip / | / [s'alc'ip
H H] / | 'rice-selling house' |
- d. $V V \rightarrow \acute{V} \acute{V}$
- | | | |
|--------------------------|-------------------------------------|---------------|
| / pom-pi / | / [pomp'i
H H] / | 'spring rain' |
| / nun-mul / | / [nunmul
H H] / | 'tear' |
| / k ^h o-mul / | / [k ^h onmul
H H] / | 'nose water' |

우선 (11) a의 예들은 아무런 성조 변동 규칙이 없이, 두 단음절 체언이 결합하여 두 음절 영역이 되면, 미리 연결된 H 성조를 기초로 (6)에서 규정한 바 대로의 성조적 음보를 형성한다. 그러나 위 (11) a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예들에는 복잡한 성조 변동이 있다.

먼저 (11) b를 보자. 여기에 적용된 성조 규칙은 리듬 규칙 (Rhythm Rule)인데, 이것은 기저에서부터 존재하는 두 H 성조간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교안이다. 이것은 영어에서 /thirtéen mén/ 이 강세 충돌을 피해서 [thirtèen mén] 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이 규칙은 형태론적 결합의 단계에서 어휘적으로 H 표시를 지닌 TBU가 연속하게 될 때 그 연속체 중 먼저 것의 H 연결선을 끊어 버리는 것인데 이 끊어진 곳의 TBU는 부재 자질 규칙으로 파생의 끝에 L 성조를 부여받는다. 리듬 규칙은 다음과 같이 진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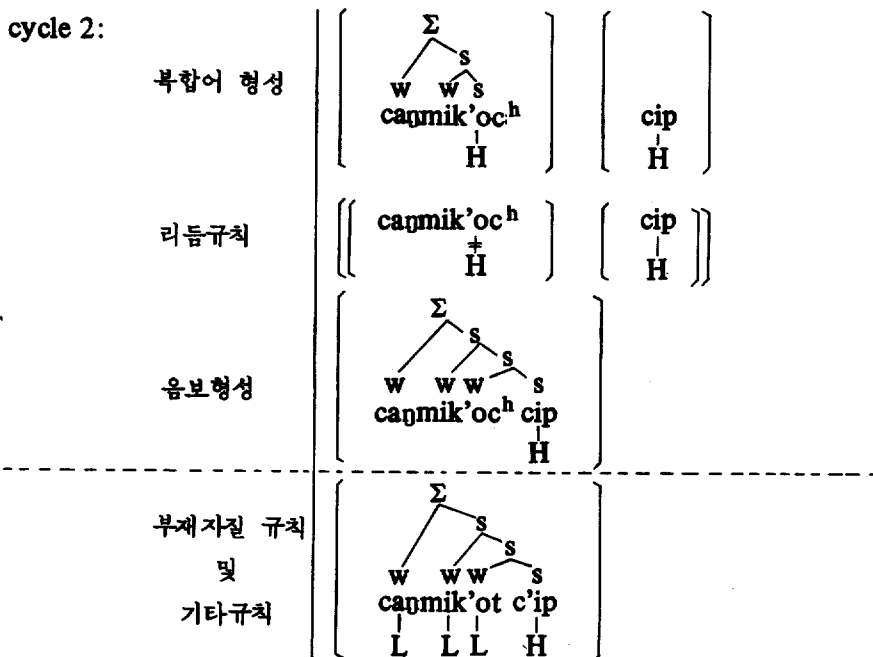
(12) 리듬 규칙 (Rhythm Rule)




규칙 (12)의 출력(output)은 성조 음보 형성의 입력(input)이 되어 (11) b의 옳은 표면 성조형을 낳는다.

음운규칙이 모든 형태규칙의 출력마다 적용되는 어휘음운론의 순환성 원리를 방언 성조의 리듬규칙은 잘 나타내고 있다. 아래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규칙 (12)는 형태론적 괄호(morphological bracket)에 의존하면서 각 형태론적 과정 다음에 순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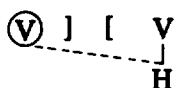
(13)	$\left[\begin{array}{c} \Sigma \\ w \quad s \\ \text{ca} \text{ } \text{mi} \\ \text{H} \end{array} \right] \quad \left[\begin{array}{c} \text{k'oc}^h \\ \text{H} \end{array} \right] \quad \left[\begin{array}{c} \text{cip} \\ \text{H} \end{array} \right]$ <p>'rose' 'flower' 'house'</p>
cycle 1 :	
복합어 형성	$\left[\left[\begin{array}{c} \Sigma \\ w \quad s \\ \text{ca} \text{ } \text{mi} \\ \text{H}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text{k'oc}^h \\ \text{H} \end{array} \right] \right]$
리듬규칙	$\left[\left[\begin{array}{c} \text{ca} \text{ } \text{mi} \\ \text{H}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text{k'oc}^h \\ \text{H} \end{array} \right] \right]$
음보형성	$\left[\begin{array}{c} \Sigma \\ w \quad s \\ w \quad \text{ca} \text{ } \text{mi} \quad \text{k'oc}^h \\ \text{H} \end{array} \right]$



여기서, 리듬 규칙은 자립적인 성조규칙으로 적용되었고, 이 규칙으로 말미암아 기저 H 성조를 바탕으로 세워졌던 이전의 음보는 자연스럽게 소멸되고 새로운 핵인 H 성조를 바탕으로 새로운 음보구조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부재자질의 값인 L이 빈 자리에 삽입되어 올바른 성조가 락 []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제 (11)c의 예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들의 올바른 도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H 성조 전파 규칙 (H Spreading)이 필요하다.

(14) H 전파 규칙 (H Spreading Rule)



이것은, 성조가 없는 형태소가 기저에 H 성조가 달린 형태소와 연결체를 이루게 될 때 H 성조가 왼쪽 TBU로 전파된다는 규칙으로, 리듬 규칙과 마찬가지로 파생법 및 활용법의 여러 단계에서도 생산적으로 적용된다. 그런데, 이 규칙의 적용결과는 리듬 규칙의 환경을 만족시키므로, 그릇된 형을 막으려면 리듬 규칙이 H 성조 전파 규칙을 앞서야 한다. 또 위 (11)c의 구조들이 S, W가 표기된 음보 형성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OCP에 의해 하나의 H 평성조로 취급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11) d의 예들 차례이다. 이들은 기저 표시에서 핵이 없는 체언끼리 합쳐져서 어휘적 과정에 참여하게 된 예들이다. 그런데, 하나의 운율적인 음보는 반드시 하나의 핵을 부여 받아야 하는 것이 방언 성조의 한 중요한 특징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우선 체언 혹은

어간에 핵을 부여할 아래 (15)의 규칙이 필요하다. 이 규칙 역시 파생과 활용의 여러 단계에서 자주 등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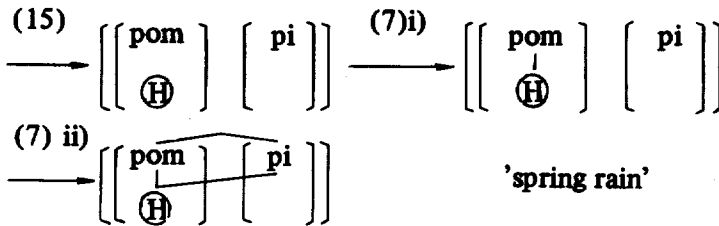
(15) \textcircled{H} 성조 삽입 규칙 (\textcircled{H} Insertion)

$$\phi \rightarrow \textcircled{H} / \text{---}] \text{ stem } \left\{ \begin{array}{l} \text{noun} \\ \text{verb} \end{array} \right\}$$

즉, 핵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기 위해 핵이 없는 체언이나 어간에 일단 부유 성조를 삽입한다. 그러면 이것은 이 방언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성조 연결규약을 만족시키므로 아래 (16)에 예시하듯이 옳은 표면 성조형을 낳는다. 이 때 생기는 두 연속 H 성조는 역시 OCP의 영향으로 하나의 평성조로 여겨지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된 음보가 될 수 없음은 (11) c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16) 기저표시

$$[\text{pom}], [\text{pi}], \xrightarrow{\text{복합어 형성}} [[\text{pom}][\text{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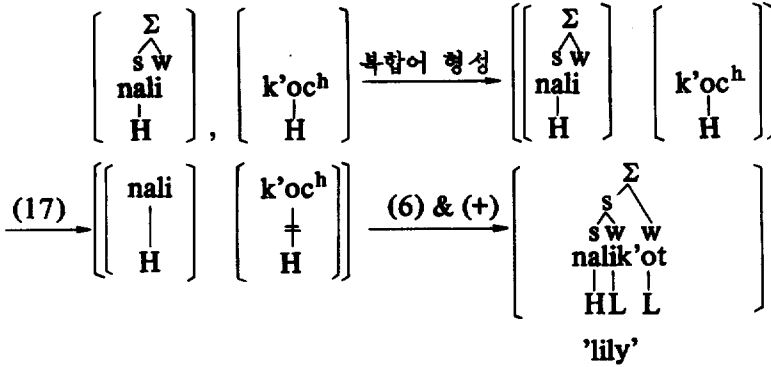
이것으로 위 (11)에 소개한 복합어 형성 단계의 자료들의 성조 변동은 다 살렸다. 그러나 방언 성조에는 이 외에 또 하나의 규칙이 존재한다. 즉, 어휘 과정에서 문법적인 단어가 성조 없는 TBU가 사이에 건 두 군데의 핵을 지닌 채 나타날 때는 두 번째 H의 연결선을 끊는 규칙이다. 이것은 한 어사 당 반드시 한 군데의 핵만을 지니려는 방언 성조의 특징이 표출된 것인데, 이는 주로 맨 마지막 외의 음절에 어휘적으로 표시된 H 성조가 주어진 명사가 첫 음절에 H 성조를 부여 받은 명사와 결합될 때에 적용되어지는 어휘규칙 (lexical rule)이다. 앞에서 본 리듬규칙이 인접한 두 H 중 앞의 것의 연결선을 끊던 것과는 반대로, 이 규칙은 두 번째 H의 연결선을 끊는 규칙으로 진술된다.

(17) 두번째 H 탈락 규칙 (Second H Delinking Rule)

$$\begin{array}{c} V \\ | \\ H \end{array} \quad V_1] \left[\begin{array}{c} V \\ + \\ H \end{array} \right. \quad (\text{여기서 } V_1 \text{ 은 maximal sequence of empty V 들이다.})$$

다음은 위 (17)이 적용된 간단한 예이다.

(18) 기저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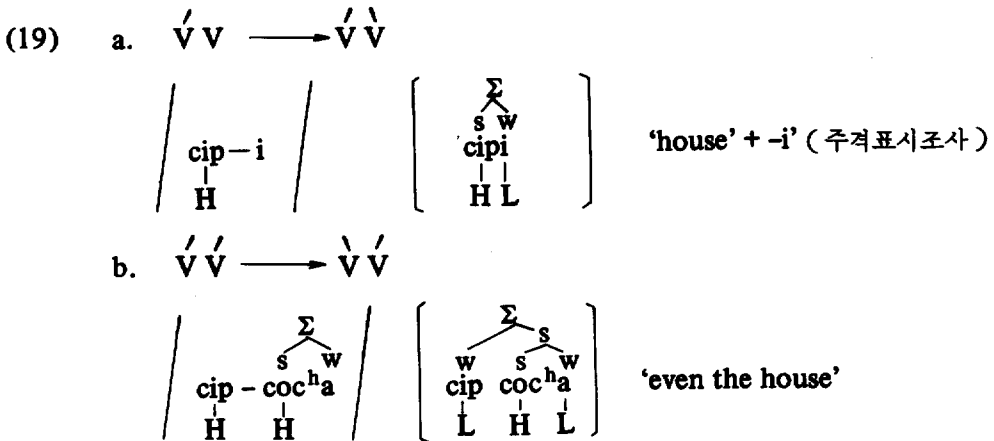


위에서 보듯이 두 H 중 하나의 선이 끊어짐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운율적인 성조 음보가 형성될 수 있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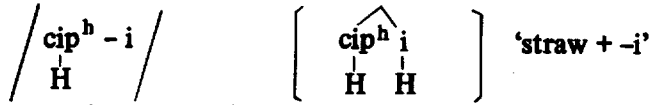
이상으로써 네 가지 어휘규칙, 즉 리듬규칙, H 전파규칙, H 삽입규칙 및 두번째 H 탈락규칙 등이 복합어 형성의 단계 (level) 에서 필요함을 보였다. 이 규칙들은 아래에서 계속 논의 될 격표시, 파생 및 활용의 단계에서 자주 적용되는 일반성 있는 것들이다.

3.2. 격표시, 파생 및 활용 접사와 단계 (Case Marking, Derivation, Infle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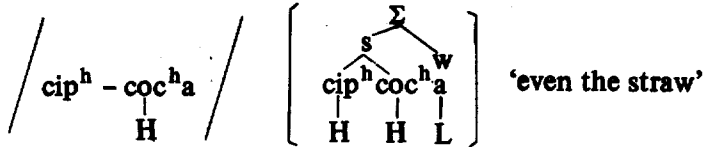
이 단계에서 맨 처음 다룰 것은 앞에서 본 명사 체언들에 격표시 조사들이 연결될 때의 성조 변동에 관한 것이다. 국어의 격표시 조사 '이, 가, 은(는), 을(를)' 등은 모두 기저에서 성조가 없는 것들인데 이들은 격표시 단계에서 성조 변동이 종종 생긴다. 또한 기저에서 부터 H 성조를 타고난 접사들도 간혹 있는데 /초차/, /부터/, /까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이 체언 뒤에 올 경우에도 역시 성조 변동이 생긴다. 다음 (19)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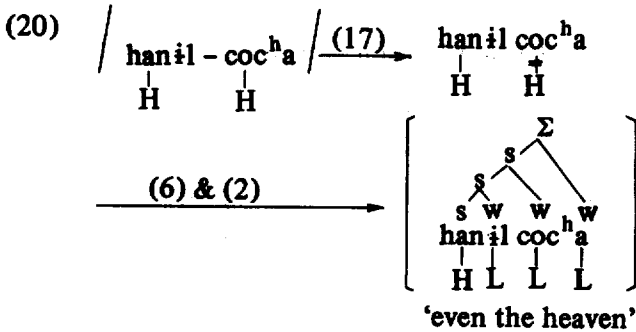
c. $V V \longrightarrow \acute{V} \acute{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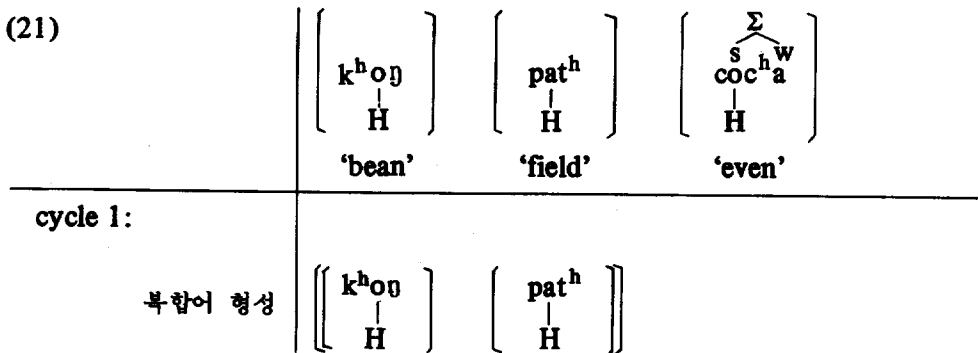
d. $V \acute{V} \longrightarrow \acute{V} \acute{V}$



위 예들에서는 복합어 형성 단계에서 제안했던 규칙들이 그대로 표면 성조형을 예측하게 해 준다. 이를테면, 위 (19) b는 리듬 규칙 (12)가 적용된 것이고, c에는 H 성조 삽입 규칙 (15)와 성조 연결 규약 (7)이 적용되었으며, d에는 H 성조 전파 규칙 (14)가 적용되었다. 또한 위 자료에서는 예시하지 않았으나, 두번째 H 탈락규칙 (17)도 아래 (20)에서 차례이 단계에서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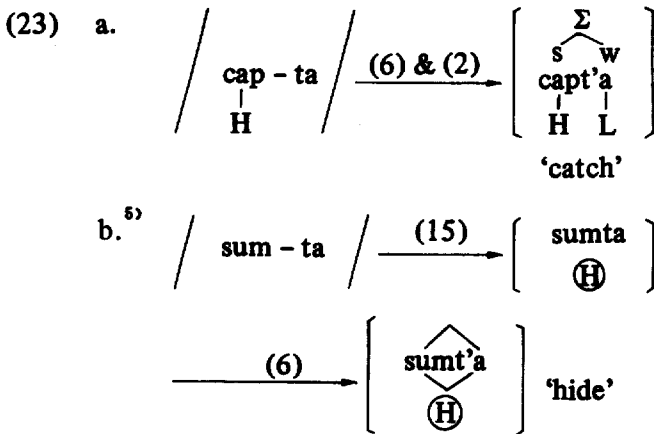
이제 복합어 형성과 격 표시 접사화의 단계적 순서를 따라 리듬 규칙이 순환적으로 (cyclically) 적용되어지는 예시를 아래 (21)에 보임으로써 명사와 관련된 복합어 형성 및 격 표시 접사화 단계에서의 성조 변동 논의를 마무리짓고자 한다.



- (22) a. 잘다, 놓다, 질다, 굽다 (bend)
 곁다 (tuck up) 낮다 (low)
 b. 술다, 탄다, 물다, 울다, 웃다
 굽다 (broil), 걷다 (walk), 낫다 (becured)

위 예들에서 국어의 주요 문제거리인 변칙 활용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이 발견된다. 말하자면, 위 a의 H 성조 어간을 기저에 지닌 동사들은 ‘으니, 아(어)서’ 등의 활용어미와 연결될 때에 정칙활용을 겪어 ‘(질이) 굽어서, (팔래를) 걸으니’ 등이 되는 반면에, 기저 H가 없는 어간들은 위의 활용어미와 연결될 때에 이른바 ㅂ, ㄷ, ㅅ 변칙활용을 겪어 ‘(고기를) 구워 (*굽어), (걸음을) 걸으니 (*걸으니)’ 등으로 실현된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변칙 활용의 규칙 진술에 성조가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제, 파형 사역형 접사와 수동형 접사가 붙은 후 활용 어미가 첨가되는 경우는 잠시 접어두고 국어 서술어의 활용형에서 가장 간단한 종결형 어미와 연결된 위 (22) 예들의 도출을 다음과 같이 예시한다.



즉, 기저에 H 성조를 타고 난 동사들은 무표시의 활용어미들과 결합하여 위 a와 같은 [HL]의 형이 되며, 기저에 성조가 없는 동사들은 H 삽입 규칙과 성조 연결 규약을 차례로 겪어 b와 같은 [HH]의 형으로 나오는 것이다. 동사의 활용 단계에서는 활용어미에 따라 성조 변동이 매우 다양하므로, 그 논의가 필요 이상으로 장황해질 것 같아서 이에 관해서는 고를 달리하여 다룰 것을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비교적 규칙적인 성조 교체 현상을 보이는 서술형 종결 어미의 언급에 그치기로 한다.

5) [Sum-ta]류 동사에서 그 어간이 장음을 지닌 것으로 분석하는 이들도 많으나 기저의 성조표시로써 이미 변별적 기능을 행사하므로 본 논의에서는 장단을 성조 교체의 잉여적인 자질로 보고 그 언급을 피하고 있다.

이제, 파생 사역형 및 수동형 동사의 파생 단계에서의 성조 현상에 관심을 돌리자. 먼저 다음 자료들을 보자.

(24) a. $\acute{V} \acute{V} \longrightarrow \grave{V} \acute{V}$

/ cap - hi - ta /

H HL

[Σ]

w s w

caphita

L HL L

'to be caught'

b. $V \acute{V} \longrightarrow \grave{V} \acute{V}$

/ kət - li - ta /

HL

[Σ]

w s w

kəllita

LHL L

'to be walked'

c. $\acute{V} V \longrightarrow \acute{V} V$

/ ip - hi - to /

H L

[Σ]

s ww

iphita

H L L

'to have someone clothed'

d. $V V \longrightarrow \acute{V} V$

/ ul - li - ta /

L

[Σ]

s ww

ullita

H L L

'to have someone wept'

위에 소개한 예들의 성조형은, 수동형인 a, b의 경우에는 그 기저 어간의 성조에 상관없이 [LHLL]로, 또 사역형인 c, d의 경우에는 [HLL]로 실현되고 있음이 특이하다. 이것은 방언의 수동 및 사역의 모든 어휘에서 예측되어지는 바이며 거의 예외가 없다.⁶⁾ 그런데 이런 표면형의 계열적 차이는 각 파생 접사의 기저 성조표시에서 비롯된다. 즉, 수동의 접사는 기저에서 두 개의 모라위에 얹혀있는 HL이라는 하강 굴곡성조(contour tone)를 지녔고, 사역의 접사는 기저에서 한 개의 모라 위에 얹힌 L 성조를 미리 부여받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앞서 본 바 대로, 동일한 음으로 이루어진 동사의 어간이 그 기저의 성조로써 의미의 변별적인 차이가 설명되었던 것과 같은 이치로 다룰 수 있다. 즉, 국어에서 '이, 히, 리, 기'

⁶⁾ 필자가 아는 한 유일한 예외는 '보이다'의 사역형 및 수동형이 모두 [LHL]로 실현되는 것이다.

등은 파생 시역형이나 파생 수동형에서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접사들이다. 이들에게 각기 고유의 성조형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의 다른 쓰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내재적 노력의 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성 싶다.

이제 (24) 예들의 파생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 (24) a는 복합어 형성 단계에서 수립한 것과 같은 리듬 규칙이 적용된 결과이다. 그런데 (24) b는 우리가 앞에서 수립한 H 성조 전파 규칙 (14)의 구조기술을 만족시키므로 [HH̄LL]로 실현되어야 하나 이것은 그릇된 표면 성조형이다.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파생 제약 (Derivational Constraint)이 이 단계에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수동형 동사의 표면형은 반드시 [LHLL]형이어야 한다는 표면형에 대한 제약이 H 성조 전파 규칙이 위 b의 예에서 막아졌다고 보면 될 것이다. 수동형 동사에 작용하는 표면의 필터 (surface filter)로서 아래 (25)를 설정한다.

(25) * H] verb stem] passive

다음 (24) c를 보자. 이것은 아무런 변화 없이, 빈 자리 TBU 에 부재자질의 값인 L 성조를 부여받아 나온 표면형이다. 다만, 그 시역형 접사의 기저 표시에 이미 연결된 L 성조가 있음이 특이한데, 이것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그 하나는, 파생 수동형 접사의 기저 성조형인 H̄L과 의미적인 대조 기능을 위해 L 성조의 기저 설정의 의의가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4) d의 예와 관련된 것인데, 이 불투명의 (opaque) L 성조 설정은, 이런 장치가 없다면 당연히 그 적용이 불가피한 성조 연결 규약 (7)을 막기 위한 것이다. (24) d의 기저 표시에는 기저에 연결된 H 성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어간인 [을]에 ① 성조가 삽입되고 연결 규약 (7)이 연이어 적용된다. 이 때, 기저의 시역형 접사의 TBU가 비어 있다면, (7) i), ii)에 의해 * [올리다]라는 잘못된 성조형이 도출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설정한 불투명의 L 성조는 H 성조의 전파 연결규약을 막아주므로 옳은 표면 성조형을 끌어내는데 공헌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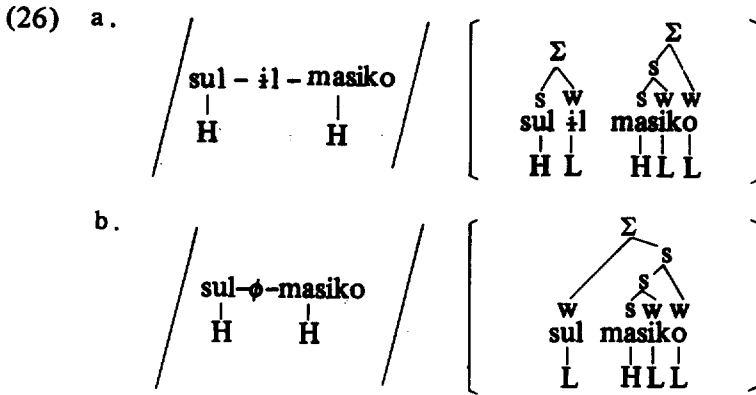
이상으로써 어휘부 내에서 일어나는 형태 과정인 복합어 형성, 파생 및 활용 단계에서의 성조 변동 규칙들이 때로는 그 파생 제약을 고려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규칙성 있게 작용하고 있음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룰 것은, 우리가 논문의 전반부에서 본 음운론적인 성조적 음보 (tonal foot)의 개념과 관련하여, 어휘부의 형태론적 단계를 벗어난 후 어휘부 단계 (postlexical level)에서의 성조 변동 현상을 보고자 한다.

3.3. 후 어휘적 단계 (Postlexical Level)

지금까지 어휘부의 여러 단계에서 설정된 성조 변동의 규칙들은 모두가 하나의 핵을 지닌 성조 음보 (tonal foot)를 형성하고자 하는 방언 성조의 한 중요 특징을 반영하는 것임을 보았다. 그런데, 이것은 어휘부 단계를 지나 통사부를 거쳐 나오는 후 어휘적 단계의 문법 형태소들의 연결체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를테면, 어떤 통사 규칙 (여기서는 격 조사 탈락

규칙)이 적용된 이후에 생긴 통사적 구조들에도 위에 제안한 꼭 같은 어휘적인 성조규칙들이 적용되면서 성조적인 음보 형성도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음운론적인 음보 구성은 어휘부 밖에서건 안에서건 성조변동 규칙에 민감하게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며, 이것은 더 나아가서 방언 성조의 “한 음운론적 성조 음보 당 한 군데의 핵(one peak per phonological tonal foot)”이라는 중요한 특징이 후 어휘부 단계에 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제 다음의 두 예를 비교해 보자.



예시한 바와 같이 a의 예는 두 H의 존재로 인해 두 개의 성조적 음보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나, 목적격 조사가 탈락한 b의 예에서는 기저의 H 성조가 둘 연속하는 환경이 되므로 리듬 규칙이 적용되고 그 결과로 한 개의 성조적 음보가 그 위에 세워지게 된 것이다.

이 단계에서의 리듬 규칙은 그 분석단위의 내적인 형태론적 팔호 정보에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후 어휘적 규칙(postlexical rule)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 이제 앞에서 설정한 나머지 어휘적 성조 규칙들에 대해서도 후 어휘적 단계에서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고려해 보자.

먼저 두번째 H 탈락규칙(17)을 보면, 이 규칙은 후 어휘적 단계에서 선택적으로(optionally) 적용된다. 즉, 위(26)a와 같은 예가 이 규칙의 적용 환경을 만족시키는데, 이 규칙이 적용되면 두번째 등장하는 H의 연결선이 끊어지면서 그 표면형은 [술을 마시교]와 같이 핵이 한 군데 존재하는 하나의 음보로 재구성이 되나 이 규칙은 방언 화자들의 발음에서 볼때 결코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고려할 것은 ㉠ 성조 삽입 규칙(15)과 H 전파 규칙(14)이다. 이 두 규칙은 후 어휘적 단계에서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들 규칙의 구조 기술이 반드시 성조가 기저에서 연결되어 있지 않은 TBU에 적용될 것을 말하고 있으나, 어휘적 단계를 지나는 동안에 이들 규칙이 이미 적용되어 빈 자리가 H 성조로 채워진 상태로 후 어휘부에 넘어오므로 이 단계에서의 H 삽입 혹은 전파의 작용이 아무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H 전파규칙을 후 어휘부 단계에서 차단(block)시키지 않는다면 (26)a와 같은 예에 잘못 적용되어 * [술을 마시교]와 같은 그릇된 형태를 낳을 수 있다.

아래 예시는 후 어휘적 단계에서, 리듬 규칙은 적용되나 ㉠ 삽입 및 H 전파 규칙은 무의미한 규칙들임을 보여준다.

(27) a. 기저표시 $\left[\begin{array}{c} \text{san} \\ \text{H} \end{array} \right], \left[-i \right], \left[\begin{array}{c} \text{nop}^h \\ \text{H} \end{array} \right], \left[-ko \right]$

어휘단계 :	$\left[\begin{array}{c} \Sigma \\ \text{s} \quad \text{w} \\ \text{san-i} \\ \text{H}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Sigma \\ \text{s} \quad \text{w} \\ \text{nop}^h - \text{ko} \\ \text{H} \end{array} \right]$
후 어휘단계 :		
격조사탈락	$\left[\begin{array}{c} \text{san} - \phi \\ \text{H}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Sigma \\ \text{s} \quad \text{w} \\ \text{nop}^h - \text{ko} \\ \text{H} \end{array} \right]$
리듬규칙	$\left[\begin{array}{c} \text{san} - \phi \\ \text{H}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text{nop}^h - \text{ko} \\ \text{H} \end{array} \right]$
음보형성	$\left[\begin{array}{c} \Sigma \\ \text{w} \quad \text{s} \quad \text{s} \quad \text{w} \\ \text{san} \text{nop}^h \text{ko} \\ \text{H} \end{array} \right]$	
부재자질규칙 및 기타규칙	$\left[\begin{array}{c} \Sigma \\ \text{w} \quad \text{s} \quad \text{s} \quad \text{w} \\ \text{san} \text{nop}^h \text{k}'\text{o} \\ \text{L}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right]$	

b. 기저표시 $\left[\text{mul} \right], \left[-i \right], \left[\begin{array}{c} \text{malk} \\ \text{H} \end{array} \right], \left[-in \right]$

어휘단계 :	$\left[\begin{array}{c} \text{mul-i} \\ \oplus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Sigma \\ \text{s} \quad \text{w} \\ \text{malk} \text{in} \\ \text{H} \end{array} \right]$
후 어휘단계 :		
격조사탈락	$\left[\begin{array}{c} \text{mul} - \phi \\ \oplus \end{array} \right]$	$\left[\begin{array}{c} \Sigma \\ \text{s} \quad \text{w} \\ \text{malk} \text{in} \\ \text{H} \end{array} \right]$
음보형성	$\left[\begin{array}{c} \Sigma \\ \text{s} \quad \text{s} \quad \text{w} \\ \text{mul} \text{malk} \text{in} \\ \text{H}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right]$	
부재자질규칙 및 기타규칙	$\left[\begin{array}{c} \Sigma \\ \text{s} \quad \text{w} \\ \text{mul} \text{malk} \text{in} \\ \text{H} \quad \text{H} \quad \text{L} \end{array} \right]$	

위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격 조사 탈락으로 성조 변화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출력의 성조를 바탕으로 반드시 새로운 하나의 음운론적 음보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방언 성조의 일반적 특징이 어휘적 및 후 어휘적 단계에서 공히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지금까지 다룬 어휘적 및 후 어휘적 규칙과 관련하여, 부제자질 L 성조 삽입 규칙이 어느 단계에서 적용될 것이냐의 논의가 남았다. 즉 그 적용이 어휘적이냐 아니면 후 어휘적이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휘적 혹은 후 어휘적 단계의 시작 부분에서인가 아니면 끝 부분에서인가에 대한 언급이 되겠다. Pulleyblank (1986)에 의하면, 대표적인 성조 언어 중에서 Dschang 어는 어휘부에서 적용되며, Tiv 어와 Margi 어는 어휘부와 후 어휘부 사이에서 적용되며, 또한 Yoruba 어는 후 어휘부의 모든 규칙이 다 적용된 이후에 이 부제자질 규칙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경상방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것인가? 결론적으로 본 논의에서는 이 규칙이 모든 종류의 성조 규칙이 다 적용된 이후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만약 이 부제자질 규칙이 어휘적 성조 규칙들 보다 먼저 적용된다면, 부여된 불투명의 (opaque) L 성조는 어휘 규칙인 ㉠ 삽입 규칙 및 H 전파 규칙들을 막아 버리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 수립한 방언 성조의 모든 규칙들이 L 성조를 바탕으로 진술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점으로도 부제자질 규칙이 파생의 맨 끝에 등장함을 짐작할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부제자질 L 성조는 후 어휘적 리듬 규칙 (postlexical rhythm rule)까지의 적용이 끝난 이후에, 그 규칙으로 인해 기저로부터 주어진 H와의 연결선이 끊어진 TBU를 포함하여 그 때까지도 빈자리로 남아 있는 모든 TBU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상으로써 경상방언의 성조 현상을 기술하기 위한 모든 어휘적 및 후 어휘적 규칙들이 완성되었다. 다음 표는 지금까지 논의한 모든 규칙들을 그 적용 단계별로 정리한 것이다.

(28) 경상방언의 성조규칙 및 규약⁷⁾

적용영역		규칙의 종류	
어휘부	비파생 어휘항목	연결규약 (7)	
	파생 어휘항목	리듬규칙 (12)	H전파규칙 (14), ㉠삽입규칙 (15), 두번째 H 탈락규칙 (17)
후 어휘부		부제자질 규칙 (2)	

⁷⁾ 위 표에서 실선은 의무적 (obligatory) 적용을 의미하고 점선은 선택적 (optional) 적용을 의미한다.

4. 맺음말

방언 성조에 관하여는 그간 여러 언어학자들에 의한 활발한 논의가 있었으나, 자립분절 음운론적 체계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드문 편이었다. 본 논문은 Goldsmith (1976), Haraguchi (1977) 등의 이론을 수정하여 어휘음운론의 체계 속에서 보다 폭 넓은 성조 현상을 기술하고자 노력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여러 규칙들은 경상 방언의 성조가 어휘목록 속에 이미 일부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으며, 어휘적 및 후 어휘적 성조 규칙들이 어휘음운론적인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보였다.

또한 이 논문을 이끌어간 중요한 제안은, 여기에서 수립한 여러 성조 변동 규칙들이 궁극적으로는 “한 음운론적 음보 (phonological foot) 당 하나의 핵”이라는 방언성조의 일반적 특징을 반영시키기 위해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Hayes (1980) 등에서 보이는 운율의 수형도 (metrical tree)를 형성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보고 이를 성조 기술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방언성조의 여러 교체 현상들은 이 방언에 운율적 음보가 있다는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 것이다. 더우기 이 접근법은 이전 이론으로는 기술이 불가능했던, L 성조들 사이의 음성적인 변별적 높이 차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으로 어휘음운론의 문법 모형에 기초하여 운율적 음보 (metrical foot) 구조를 지닌 언어로 방언 성조를 기술함으로써,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던 여러 성조 변동 현상들이 극히 체계적이고 질서적인 방법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음을 보였다.

여기서 다룬 자료들은 대구 토박이인 필자의 발음이 대부분 근거가 되었으며 문효근(1962), 정국(1980), Narahara (1985), 이해숙(1985) 등도 자료 분석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밝힌다.

참 고 문 헌

- 문효근. 1962. 대구방언의 고저 장단. 「인문과학」, 7, 53~103.
 이기문. 1972. 「국어 음운사 연구」. 탑출판사.
 이병진. 1986. 자립 자립분절음 음운론. 「어학연구」 22. 3, 255~350.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이해숙. 1985. 경남방언 성조의 자립분절음운론적 연구. 「언어」 10. 2, 203~230.
 정연환. 1979. 「경상도 방언 성조연구」. 탑출판사.
 허 용. 1963. 「중세 국어 연구」. 정음사.
 Ahn, Sang-Cheol. 1985. *The Interplay of Phonology and Morphology in Korean*.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Chung, Kook. 1980. *Neutralization in Korean: A Functional View*.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Clements, George & Kevin Ford. 1979. Kikuyu Tone Shift and its Synchronic Consequence. *Linguistic Inquiry* 10. 179-210.
- Halle, Morris & Jean-Roger Vergnaud. 1982. On the Framework of Autosegmental Phonology. in H. van der Hulst & 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 Part (1)*. 65-82, Dordrecht: Foris.
- Haraguchi, Shosuke. 1977. *The Tonal Pattern of Japanese: An Autosegmental Theory of Tonology*. Tokyo: Kaitakusha.
- Han, Seon-Hee. 1988. An Autosegmental Approach to a Kyungsang Dialect: A Lexical Analysis. Paper Presented at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Toronto.
- Hayes, Bruce. 1980. *A Metrical Theory of Stress Rules*. Ph. D. Dissertation, MIT. Distributed by the Indiana University Linguistics Club.
- Huang, C.T. 1985. An Autosegmental and Metrical Nature of Tone Terracing.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209-237.
- Hulst, van der Harry & Norval Smith. 1982. An Overview of Autosegmental and Metrical Phonology.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 Part (1)*. 1-46. Dordrecht: Foris.
- Hyman, Larry. 1982. Against Asterisks in Luganda & Bantu Tonology: A Reply to Hyman 1982 a. ms. USC.
- Kiparsky, Paul. 1982. Lexical Morphology and Phonology. in I-S. Yang (ed.) *Linguistics in the Morning Calm*. 3-91. Seoul. Hanshin Publishing Co.
- Leben, William. 1978. The Representation of Tone. in V. Fromkin (ed.) *Tone: A Linguistic Survey*. New York: Academic Press.
- Lieberman, Mark & Alan Prince. 1977. On Stress and Linguistic Rhythm. *Linguistic Inquiry* 8. 149-336.
- Narahar, Tomiko. 1985. The Accentual System of the Kyengsang Dialect. *Harvard Studies on Korean Linguistics (1)*. 257-269. Department of Linguistics, Harvard University.
- Odden, David. 1986. On the role of the obligatory contour principle in phonological theory", *Language* 62. 2. 353-383.
- Pike, Kenneth & E. Pike. 1947. Immediate Constituents of Mazateco Syllables. *International Journal of American Linguistics* 13, 78-91.
- Poser, William. 1984.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Tone and Intonation in Japanese*. Ph. D Dissertation, MIT.
- Pulleyblank, Douglas. 1986. *Tone in Lexical Phonology*. Reidel.
- Ramsey, Robert. 1978. *Accent and Morphology in Korean Dialects*. Seoul: Tower Press.

Rice, Karen. 1988. **Metrical Structure in a Tone Language: The Foot in Slave (Athapaskan)**. Paper Presented at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Linguistics, University of Toronto.

한국 외국어 대학교
서양 어문대학